

# “민생 문제에 서로 협력해야”

### 문 대통령, 정치권에 국정상설협의체 조속 가동 제안 “추경 처리 시급... 민생 입법도 신속히 처리해야 여야정협 이어 5당 대표 회동도... 국정 전반 논의 정당 대표들 만나 대화·소통 정치 계기 마련 기대”

문재인 대통령은 14일 추가경정예산안과 민생 입법 등의 처리를 위해 여야정 국정상설협의체를 조속히 가동하자고 정치권에 제안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면서 모두발언을 통해 “정치가 때론 대립하더라도 국민의 삶과 국가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서로 협력할 것은 협력해야 한다는 것이 국민의 바람”이라고 말했다.

이날 “대의 경제의 불확실성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민생에 온기를 넣기 위해서는 여야를 넘어 초당적으로 힘을 모을 필요가 있다”며 “여야정 국정상설협의체 개최와 5당 대표 회동으로 막힌 정국의 물꼬를 틀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여야정 국정상설협의체부터 조속히 개최되길 기대한다”며 “여야정 국정상설협의체는 생산적 협치를 위해 여야정이 함께 국민 앞에 한 약속이다. 분기별 정례 개최는 정국 상황이 좋은 나쁘든 그에 좌우되지 않고 정기적으로 운영해나가자는 뜻으로 합의한 것이다. 지켜지지 않는다면 아무런 의미가 없게 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늦었지만 이제라도 하루 속히 개최하고 정상화해서 국회 정

한다”고 설명했다. 대통령과 여야 5당 대표 회동이 조속히 열릴 필요가 있다는 점도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여야정 국정상설협의체에 이어 5당 대표 회동도 열 수 있다”며 “안보 현안과 대북 인도적 식량지원을 포함한 국정 전반에 대해 논의와 협력의 길을 열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어 “정당 대표들과 만나니 우리 정치가 극단적 대립의 정치가 아닌 대화와 소통의 정치로 가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며 “국민의 바람도 같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최근 경제 상황에 대해 우려를 표시하면서 정부에 적극적인 대응을 요구했다.

문 대통령은 “대의 경제 여건이 악화되고 있는 가운데 미중 무역협상까지 더해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며 “정부는 대외 리스크 관리에 더욱 만전을 기하고 우리 경제의 활력을 높이기 위한 노력에 더욱 속도를 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어 “전통 주력 제조업의 혁신, 신산업 육성과 제2의 벤처붐 조성, 규제샌드박스, 혁신금융 등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정책이 빠르게 성과를 낼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며 “관광 활성화와 서비스 산업 육성 등 내수 활성화에 힘을 기울이면서 민간 투자 분위기를 확산을 위한 현장 소통을 더욱 강화해달라”고 주문했다.

또 “재정의 적극적인 역할도 중요하다”며 “중앙정부 뿐 아니라 지자체도 함께 속도를 맞춰 재정의 조기 집행이 이뤄질 수 있도록 각별한 노력을 기울여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뉴시스

# 사회적경제 지역 전달 체계 강화, 현장에서 답을 찾는다

### 전북도, 정책순회간담회 가져



전북도가 14일 사회적경제기업 성장지원센터인 소셜캠퍼스온에서 사회적경제 지역 기반 및 정책역량 제고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간담회를 가졌다.

전북도는 14일 사회적경제기업 성장지원센터인 소셜캠퍼스온에서 사회적경제 지역 기반 및 정책역량 제고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간담회를 가졌다.

이 자리에는 이원택 정무부지사, 행정안전부 김학홍 지역혁신정책관을 비롯한 중앙부처, 중간지원조직, 연대조직, 전문가, 유관기관, 기업대표 등 사회적경제 관련자가 한자리에 모였다.

이번 간담회는 전북의 다양한 사회적경제 정책 추진이 되고 있지만, 정부 정책의 전달 효율성이 부족하고 현장 체감도가 낮다는 분석에 따라, 전북을 시작으로 정부(행안부)주관으로 지역 기반 및 정책 역량 강화 방안에 대한 이해도 제고, 지역 현황 파악 및 상황식 정책 수립을 위해 순회 간담회를 갖고 개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됐다.

간담회는 전북도 사회적경제 지역 기반 및 정책역량 제고 방안 설명, 행정안전부 김학홍 지역혁신정책관 주재로 문제점 및 개선방안, 사업진출 방안 등에 대한 토론 순으로 진행되었다.

간담회 주요내용으로는 전라북도 사회적경제 정책 기초자료로대로 사회적경제 추진체계 구축, 전달조직 설치, 중간지원조직 설치·운영, 지역 네트워크 구성, 지역 생태계 조성(인력양성, 창업지원, 금융지원, 판로지원) 문제점 및 개선방안에 대한 내용이었다.

참석자 모두는 지역 현정이 체감하는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해서조속

히 「사회적경제기본법」이 제정되고, 정부의 사회적경제 활성화 정책 틀에서 지역 특성에 맞는 사회적경제정책 추진이 필요하다고 공감했다.

전북도는 효율적 정책 실현을 위한 지원체계 구축을 위해 조례를 제정(18. 10)하여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전달조직을 설치(19. 1)했다.

현재는 협력과 연대로 사람을 향하는 지역 사회 구축이라는 비전 수립과 지속가능한 사회적경제 성장 동력 확보 목표를 가지고 사회적경제 활성화에 박차를 가하기 위해 사회적경제 발전 기본계획을 수립 중에 있고,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협동조합, 자활기업 등 사회적경제조직을 아우르는 실천

역량 강화를 위한 지역 거버넌스를 구축하는 등 주요 정책 논의의 장을 구성했으며, 판로 확대를 위해 공공기관 공공구매를 강화하고 민간 판매 활성화를 위해 온라인 우체국 소포물 구축 등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이원택 정무부지사는 “지역의 지속적인 일자리를 창출하고 매출의 일정 부분을 사회에 다시 환원하는 사회적경제기업은 전북 경제 발전을 위해 필요한 동력 중 하나”라면서, “이번 간담회를 계기로 사회적경제 네트워크가 더욱 활발해지고 전북도 사회적경제가 더욱 활성화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다양한 정책을 마련하고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김진성 기자

# 수산생물전염병 확산 방지 ‘분주’

### 전북도, 양식장 방역장비 운영

전북도가 양식장의 수산생물 전염병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 처음으로 양식장 방역장비를 운영한다.

전북도 수산기술연구소는 도내 양식장내 수산생물 질병이 빈번히 발생되어 피해가 늘어감에 따라 수산생물 전염병 발생방지와 확산을 사전에 대처하기 위해 수산용 방역장비를 처음으로 도입하여 5월부터 본격적으로 운영하고 있다고 14일 밝혔다.

올해 처음으로 도입된 방역장비는 700 l 용량의 약제탱크를 구비하고 있으며, 탈부착이 가능한 차량 탑재 형태로 도내 양식장이면 어느 곳이

든 이동하여 사용할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특히 봄철에는 각종 병원체가 활성화되어 질병 발생 가능성이 높아지는 시기이므로 사육수조나 사육도구 등을 철저히 소독하는 것이 중요한데 이번 방역장비 도입으로 수산생물 전염병의 원천적 차단이 가능하여 어업인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어 양식어업인에 대한 현장 이동 서비스의 한 분야로써 자리매김 할 수 있는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도내 수산생물 질병관리 대상은 980개소(해면양식장 312, 내수면 양식장 629, 종도배양장 등 기타 39)이며, 수산생물 전염병은 총2종으로

내수면양식장에 주로 발생하는 전염병은 3종 전염병인 잉어허피스바이러스병, 흰반점병으로 2017부터 최근까지 총 2종 4건이 발생되었다.

따라서, 수산기술연구소에서는 수산생물전염병에 대한 차단방역 등 소독을 실시하기 위해 14개 시·군 양식장에 대한 희망자가 수요조사를 실시하였으며, 희망여가를 대상으로 방역장비를 운영하여 질병발생을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

전북도 전병관리 수산기술연구소장은 “수산생물 방역장비 도입으로 수산생물전염병의 예방과 확산방지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되며, 앞으로 현장 중심의 예찰활동을 더욱 강화하여 전염병 발생 제로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진성 기자

# 전북농기원, 농촌체험관광 운영자 대상 안전교육 실시

전북농업기술원(원장 김학주)은 전라북도 내 농촌교육농장 및 체험농장을 찾는 체험객들의 안전과 사고예방을 위해 13~14일 2일간 농업기술원 상록관에서 농촌체험관광 운영자 50명 대상으로 응급처치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농촌체험학습장을 찾는 방문객 위급상황 발생 시 대처능력을 향상시키고, 안전관리 체계를 구축하고자 대한적십자사 전북지사의 협조

를 받아 진행되었으며, 위급상황 시 행동요령 및 응급상황 대처, 심폐소생술, 자동심장충격기 사용요령, 이물질에 의한 기도폐쇄 대처, 근골격계 손상 처치 요령 등 상황별로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는 응급처치 실습교육으로 진행되었다.

교육을 이수한 농촌체험관광 운영자 50명에게는 대한적십자사가 발행하는 응급처치교육 수료증이 주어졌으며,

실제 체험활동에서 발생하기 쉬운 사고에 대해 즉시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울 수 있어, 더욱 안전하게 농촌 체험장을 운영할 수 있고 또한 정기적인 교육을 통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교육장을 만들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전북도농업기술원 관계자는 “이번 교육을 통해 위급 상황에 신속히 대처할 수 있는 응급처치 전문성을 습득하고 안전의식 강화를 통해 농촌체험학습장을 찾는 체험객의 만족도를 높여 줄 것으로 기대 된다”고 말했다.

/익산=장영원 기자

# 새만금개발청, 여름철 풍수해 대비 비상체계 구축

새만금개발청이 여름철 풍수해 재난을 방지하는 한편, 재난상황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오는 15일부터 10월 15일까지 재난안전상황실을 운영한다고 14일 밝혔다.

재난대책상황실은 기상특보에 따라 4단계로 나눠 실시간 기상 모니터링, 재난상황 파악, 수습지원 등의 상황별 비상근무를 실시한다.

특보는 관심(평시) - 주의(예비특보, 주의보) - 경계(경보) - 심각(광역적 재난) 등으로 이뤄진다. 특히, 새만금 방조제는 초속 20m 이상인 강풍과 해일로 인해 월과 우려가 있을 시 통행 제한 등의 조치를 하게 되며, 이를 위해 한국농어촌공사 및 관할경찰서와 긴밀한 공조체제를 유지할 계획이다.

주요 도로건설 현장에 대해서는 여름철 집중호우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 및 부실시공을 예방하기 위해 새만금청, 감리단, 시공업체, 전문기술자 등으로 합동 점검반을 구성해 현장 점검에 나선다.

점검반은 동서도로 2개 공구와 남북도로 4개 공구 등 6개 도로 공사다.

점검반에서는 집중호우에 취약한 수상부 준설작업, 육상부 준설·매립 및 사석쌓기 현장과 강중에 취약한 임시시설물의 안전조치 등을 중점적으로 진행한다.

/김진성 기자

“전주매일신문은  
항상 도민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구독·광고문의: 063-288-9700

www.jmaeil.com